

중소 화학기업 가동률 72% 수준

중기중앙회, 6-8월 연속 70%대 머물러 ... 1500사 평균은 69.7%

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(회장 김용구)가 중소 제조기업 1500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생산설비 평균가동률 조사 결과에 따르면, 2005년 8월 생산설비 평균가동률은 2004년 8월(67.8%)에 비해 1.9%p 상승한 69.7%를 기록했다.

그러나 하계휴가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, 완성차부문 노조파업 여파 등으로 전월대비 0.1%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.

벤처 제조업(74.6%)은 전월대비 0.6%p 상승한 반면, 일반 제조업(69.2%)은 0.3%p 하락했다.

업종별로는 전 업종에서 정상가동률 수준인 80% 미만을 기록한 가운데 운송장비(77.6%), 섬유제품(74.4%) 등 9개 업종을 제외한 11개 업종에서 70% 미만의 낮은 가동률을 보였다.

화학기업은 화합물 및 화학제품이 8월 72.3%로 6월, 7월에 이어 72%대를 유지했고, 고무 및 플라스틱 역시 69.2%를 나타냈으나 6-7월에 비해서는 약간 떨어졌다.

중소 화학기업의 평균가동률 변화

(단위: %)

구 분	평균가동률(%)				등락률(%p)	
	2004.8	2005.6	7	8	전월대비	전년동월
중소 제조기업	67.8	70.2	69.8	69.7	△0.1	1.9
음식료품	66.8	72.2	70.8	69.3	△1.5	2.5
섬유제품	69.9	72.5	72.8	74.4	1.6	4.5
화합물/화학제품	70.9	72.5	72.6	72.3	△0.3	1.4
고무/플라스틱	65.7	69.8	69.8	69.2	△0.6	3.5
비금속광물	64.0	69.0	65.9	64.3	△1.6	0.3

특히, 시멘트 가공·레미콘 등 비금속광물제품(64.3%)과 출판·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(65.0%) 등은 계절적 비수기로 조업수준이 부진했다.

<화학저널 2005/10/06>